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서진우, 이동희, 강중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jskang@kangwon.ac.kr

Relation between Internet Community Activit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on of self-esteem

Jin-Woo Seo, Dong-Hee Lee, Jong-Soo Kang
Dep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러 변인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시간, 이용 여부, 불안감 표출 여부에 따라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연구결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러 변인과 대학생활 적응은 상호 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집단 간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요 변인 별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서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층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에 존재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에 각 인터넷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 정적 혹은 부정 영향을 쉽게 받는 환경에 노출된다.

이는 익명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위와 같은 일부 사이버 공간에서는 도덕적 신념, 처벌인지도 및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생각 등 내외적 통제 작용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1].

이러한 특성의 커뮤니티 이용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사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이용자들이 관해 심리사회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인터넷 커뮤니티 주요 변인으로 커뮤니티 이용 여부, 커뮤니티 이용 시간, 커뮤니티 폐쇄시 불안감 여부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커뮤니티 주요 변인에 따른 종속변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매개변수는 효과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커뮤니티(Community)란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된 단어로 특정 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웹 이용자들이 서로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증식을 해나가는 유기체적인 집단이라고 설명했다[2].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인터넷 기반의 가상커뮤니티로서, 인터넷의 기술기반 위에서 공통적 경험과 관심사,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모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3].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대해 익명성, 탈금제, 가상성, 초월성, 전파성, 다양성이라는 더욱 세분화된 특성으로 설명된다[4].

즉 사이버 커뮤니티란, 오프라인 커뮤니티와 다르게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 간의 여러 관심사 및 정보,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상호적인 공동체이며 익명성과 가상성, 전파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Baker & Siryk(1984)는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해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한 생활이나 과외활동,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활동 혹은 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 혹은 대처하는 방법을 알며, 자신이 속한 대학, 교우

들과의 호감과 애착, 유대감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5].

덧붙여 Baker & Siryk(1984)는 대학생활 적응을 크게 네 요소로 나누었다.

① 학업적 적응(Academic Adjustment):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적인 요구에 대해 대학생들의 성공적 적응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응이다.

②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대학생들이 적응하는 정도이며, 안정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인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부모 혹은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원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가, 또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교수나 타 학생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③ 개인-정서적 적응(Social-emotional Adjustment): 상호작용성이나 자기 가치 등 대학생 개개인의 인성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 추구, 위치, 역할 등 자신에 대한 일련의 탐색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 적응으로 정의한다.

④ 넷째, 대학환경 적응(Institutional Attachment):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애착의 정도와 대학의 전반적인 질적 만족도, 또한 학업적인 목표를 진행함에 있어 몰입의 정도를 나타낸다.

Rosenberg(198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self-esteem)란 자신을 바라보는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및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Wylie(1979)는 자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정의하였고, Coopersmith(1981)은 한 개인이 자신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에 기인한 평가로서, 자신을 유능·중요·성공·가치로운 존재로 인식하는 전체적 혹은 거시적인 개념적 정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인관계란 집단 내 구성원들의 상호 간 관계를 정의하는 말이다. 대인관계는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고 성격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므로, 대인관계에서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개인은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을 경우, 행복감을 느끼고, 성격발달이 건강히 이루어지며, 정체감이 확립되는 등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반면에,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불안하거나 소

외감, 고립감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현재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8일부터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본 연구자의 지인들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에브리타임 등)에서 진행하거나 추가로 설문 전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표집에 이용한 설문지는 구글과 네이버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지는 225부로, 인터넷 설문 특성상 응답을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관계로 결측치는 없었다.

3.2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조사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26.0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우선 각 척도별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신뢰도 분석(내적 일치도)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첫째,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터넷 커뮤니티의 변인과 대학생활 적응 간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셋째, 인터넷 커뮤니티의 변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명목형 변수(불안감 여부·커뮤니티 이용 여부)와 비율척도(대학생활 적응 정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점이연 상관계수(point-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표 1]과 같이 대학생활 적응척도의 총점평균은 54.44이고, 하위요인별로 학문적 적응은 8.71(SD=2.67), 사회적 적응은 15.92(SD=3.38), 정서적 적응 14.19(SD=4.71), 대학에 대한 애착은 15.61(SD=2.57)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27.84(SD=5.34)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은 77.49점이며, 일반적 만족 17.61(SD=3.58), 친구와의 만족 17.48(SD=3.78), 교수와의 만족 21.18(SD=3.57), 부모와의 만족 21.20(SD=4.6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의 주요 변인별 빈도분석의 경우, 이용 여부와 커뮤니티가 폐쇄되는 가정 하에 불안감 표출 여부, 시간 정도를 측정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225명을 기준으로 이용 예 78.7%(177명), 아니오 21.3%(48명)로 나타났으며, 불안감 표출 여부는 예 29.7%(52명), 아니오 70.3%(123명)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절단점 150분 기준으로 이상 18.6%(33명), 이하 81.4%(144명)로 분석되었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치

변수	총점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대학생활 적응	54.44(-)	-	-
- 학문적 적응	8.71(2.67)	3	15
- 사회적 적응	15.92(3.38)	5	25
- 정서적 적응	14.19(4.71)	5	25
-대학에 대한 애착	15.61(2.57)	7	25
자아존중감	27.84(5.34)	15	40
대인관계 만족도	77.49(-)	-	-
- 일반적 만족	17.61(3.58)	5	25
- 친구와의 만족	17.48(3.78)	9	30
- 교수와의 만족	21.18(3.57)	13	35
- 부모와의 만족	21.20(4.61)	12	35

[표 2] 주요변수의 빈도분석치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여부	예	177	78.7
	아니오	48	21.3
불안감 표출 여부	예	52	29.7
	아니오	123	70.3
시간 정도	150분 이상	33	18.6
	150분 이하	144	81.4

4.2 척도별 신뢰도 분석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동과 관련해 타당화된 척도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 자체적으로 설문

지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11문항(개방형 질문 1개), 꼬리 질문 3개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일문항에 대해 충분히 사용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한 바가 있는 관계로 설정한 문항이다[10].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Baker 등이 1989년 제작한 SACQ(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국내에서 총 25문항으로 제작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1].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 0.84$ 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S(Self-Esteem Scale)을 전병재(1974)가 번역한 것을 이선영(2004)이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0.83$ 으로 높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이다. 대인관계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해 은혁기(2001)가 수정하고 보완한 인간관계 만족도 검사(Tes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를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 Cronbach's $\alpha = 0.88$ 로 신뢰도 있는 척도로 나타났다.

4.2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우선적으로 커뮤니티 이용 시간 정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H_0 인 '커뮤니티 이용시간 정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가 없을 것이다'는 을 채택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 이용 여부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점이연 상관계수(Point-Biserial-Correlation coefficient)로 계산한 결과, r^{pb} 값은 -.02로 이 역시 '이용 여부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H_0 를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안감 표출 여부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점이연 상관계수로 계산한 결과, r^{pb} 값이 .05로 '불안감 표출 여부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다'는 H_0 를 채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는 도출할 수 없었다.

다만 본 연구의 매개변수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불안감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회귀식에 대한 $R^2 = .041$ 로 약 4.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의수준 .05 기준에서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3^{**}$).

또한 커뮤니티 이용 여부가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R^2 = .018$ 로 1.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유의수준 .05 기준에서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 = .135^*$).

마지막으로 Baron &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동 탈락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각 주요 변인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요 변인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및 통계적 인과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요 변인과 종속변수 사이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는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검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다만 본 연구문제와는 별개로, 대인관계 만족도는 커뮤니티 이용 여부와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며, 커뮤니티 상의 대인관계에도 만족감을 느끼는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대학교에서 대인관계 및 학생 간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둔 자체적인 커뮤니티 증설을 통해서 대인관계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실천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커뮤니티와 관련된 척도가 개발 및 타당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SNS와 커뮤니티의 개념적 정의의 이분화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요 참고문헌

- [1] 이성식, 2008,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아와 청소년비행”, 『형사정책연구』, 75: 229-249.
- [2] 이경희, 2003, “동서양 음악미학 고찰을 통한 한국음악의 정체성 연구(1)”, 『음악과 현실』, 26: 221-249.
- [3] 서이중, 2002,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 서울: 한울아카데미.
- [4] 조동기, 2016, “사이버공간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밈’의 확산에 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21: 215-234.
- [5] 김용숙, 2009, “단일 문항 척도의 타당도 조사”, 『기본간호학회지』, 16(4): 490-496